Over the Venture

글 _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인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자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과 IT산업 진흥정책으로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IT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9.5%였으며,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27.7%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19.7%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IT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IT산업 전체 기업체 수의 9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의 25.6%, 수출의 14.5%만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IT산업이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투자위축 현상에 의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벤처 살리기에 온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IT중소 · 벤처기업인들은 다시금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을 얻어 여러 벤처 관련 기관들도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내놓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벤처업계는 새롭게 뛰겠다는 벤처정신으로 다시금 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IT벤처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도 우리나라 IT벤처기업을 단순한 경쟁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 구축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렇듯 3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우리나라 IT산업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당당한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IT산업 재도약의 비전은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비전을 성취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 먼저 IT벤처업계가 솔선수범해서 당면한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공동협력문화를 토착화시킴으로써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중요한 시기일수록 도전정신과 연합을 바탕으로 IT벤처기업의 눈부신 재도약을 이루어내길 기대해 본다.